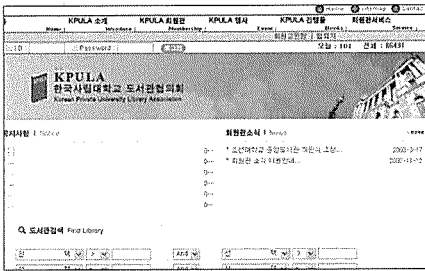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윤희정\_간사



(<http://www.kpula.or.kr>)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는 사립대학교 도서관간의 정보 공유와 친목을 다지고, 여러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학도서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하여 1972년에 설립되었다. 올해로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협의회는 현재 전국 109개 4년제 사립대학교 도서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는 설립목적에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사서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1년에 3회 실시하고 있다. 도서관장회의, 중간관리자 세미나, 실무자 워크숍으로 참가대상을 세분화하여 실시함으로써 각 구성원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기회를 마련하였다.

둘째, 도서관 발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활동의 결과물인 협회지와 도서관 제반 업무통계 및 현황, 인명록을 수록한 편람을 매년 발간하여 실제 도서관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특히 협회지의 경우 학계 뿐만 아니라 현장 사서들의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셋째,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서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나 업적이 큰 회원교나 회원에게는 공적상과 공로상을 수여하여 표창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보의 공동 이용 방안 모색, 국고지원금의 안정적 확보, 대학 평가시 도서관 비중의 확대와 합리적인 평가 방안 연구 등 대학도서관의 공통된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본 협회회의 여러 조직과 기구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모임을 통하여 토론하고 합의하고 있다. 또한 파악된 현안 문제는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서를 발송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상으로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는 활동과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앞으로 우리 협회회는 109개 회원교 도서관의 중심체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01년 4월에 협정을 맺은 국공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를 비롯하여 여러 관종의 도서관 협의회와 상호 협력하여 도서관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의 : 경원대학교 중앙도서관 윤희정 간사, 전화 : 031-750-5312, E-mail : [hjyoon@kyungwon.ac.kr](mailto:hjyoon@kyungwon.ac.kr), 주소 : (461-701)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 ※5월부터는(2004년 5월~2005년 4월 말까지) 현재 부회장교인 광운대학교도서관(관장 강철호)이 회장교로 사무국 업무를 맡게 된다. 사무국장 이무진, 전화 : 02-940-5061, [khan@kwangwoon.ac.kr](mailto:khan@kwangwoon.ac.kr)]

도서관과 NGO를 찾아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최지혜\_사무국장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 과외수업 하기 등으로 잠시의 여유도 없이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야간자율학습실시, 내신성적 반영률 높이기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 대안들은 터진 강둑 막기 식이다. 지금 또 다른 곳에서 강둑은 터지고 있다.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 그 어떤 대안도 필요 없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운동은 풀뿌리운동이다. 작년(2003년 9월)에 이 운동의 태동이 시작되었다.


도서관인, 학부모(학교도서관문화살림), 교사(초.중.고.국공.사립), 교육위원, 학생(초.중.고.대학생), 출판인, 교수, 시민단체에서 힘을 모았다. 마치 지각변동이 일어나듯이 절박감에서 강이지뚱이 되고자,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가지면서 단체가 모양새를 갖추어갔다. 머리들만의 모임이 아닌 손과 발들이 함께 모였다.

지난 2004년 1월31일(토)에는 창립준비를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마치 1919년 3.1운동이 자발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듯이 그렇게 각계의 손과 발들이 모여들었다. 시민단체(어린이도서관연구회-조월레이사), 학부모(전남우초등학교부모.학교도서관문화살림-김경숙), 교사(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류주형), 출판인(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소장-한기호), 교수(계명대문정과-김종성)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앞으로 학교도서관이 나아가길과 활성화의 당연성을 제시한 워크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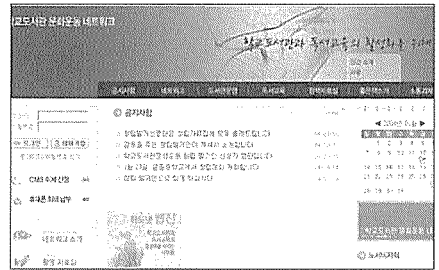
이에 힘입어 오는 3월27일(토)에는 창립대회를 열게 된다. 이 행사에는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사서교사, 출판인, 교육위원, 시민단체, 교수 등 학교도서관이 올바른 길을 가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축하의 행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 행사를 기점으로 우리 단체는 마치 민들레가 알차게 땅속에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학교도서관이 울곧게 뿌리를 내려 활성화되도록 아래의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 ▶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바로 학교도서관이 되도록 쾌적한 환경과 좋은 위치에 학교도서관을 확보한다.
- ▶ 좋은 책과 제대로된 학습자료를 구비하도록 예산확보는 물론 교장과 교사들의 올바른 도서관 인식으로 학생과 교사가 학교도서관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한다.
- ▶ 모든 학교에 정규직사서교사를 배치하기위한 정부차원의 별도 정원과 예산을 요구 한다.
- ▶ 사서교사.독서교육 담당교사.학부모봉사자의 3자 협력적인 도서관운영체제를 정립한다.
- ▶ 사범대.교대 및 문헌정보학과와의 교육과정에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편성한다.
- ▶ 도서관사서와 교사, 도서관(독서동아리)학생, 학부모자원봉사자, 문정과교수, 교대사대교수와 학생, 도서및출판평론가, 출판인, 시도교육위원들이 함께하는 전국적인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특히 2004년 상반기에는 지역네트워크 창립을 적극추진하고, 그 열기를 바탕으로 정부에 <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활성화>(모든 학교에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정원과 예산마련)을 요구할 것이다.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는 이러한 운동이 필요 없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라며,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의 : 최지혜 사무국장, 전화 : 02-336-7259, 전승 : 02-337-5347, E-mail : aiaime@hanmail.net, 주소 : (121-818)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84-17 경문사빌딩 4층]



(http://hakdo.net)